

투데이 칼럼

낮 선 장소에서 119신고 방법을 아십니까?

추석을 맞이하여 화재, 구조, 구급 등 119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귀성객들이 익숙하지 않은 현장을 설명하지 못해 긴급 출동이 늦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15년 추석연휴 기간 전국 화재는 688건으로 전년 대비 34.9%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상자는 29명으로 전년 대비 14명 증가하였다. 특히 전북은 동기간 화재가 26건에서 38건으로 46%로 증가하고, 부상자도 3명 발생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조?구급 활동은 '14년 대비 31.2%에서 17.8%로 감소하였으나, 감소의 주요 원인은 연휴기간이 '14년보다 하루가 적어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고, 주로 귀성객들의 크



조용주
무진장소방서 서장

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고향을 찾은 귀성길은 고속도로나 낮 선 도시 길로 119신고 시 설명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성묘 중 벌에 쏘이는 안전사고 시 산속 위치 설명이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을 설명

하지 못하는 경우 핸드폰의 위치를 추적하지만 통신사 기지국으로 통보되어 실제 현장과의 거리 차이가 있어 출동의 어려움을 있다.

119에 정확한 사고현장 신고를 위해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주변에서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두어야 한다.

장소별 신고 방법으로 산속에서

신고는 등산로 119위치 표지판의 지정번호, 고속도로는 갓길 쪽에 200m마다 설치된 시점표시판의 숫자, 낮 선 도시는 가까운 상가 전화번호, 건물이 없는 농촌 지역은 전봇대 지정번호 숫자 및 영여 자리를 신고하면 된다.

끝으로 귀성길 고속도로 운전은 핸들 조작이 드물고 단조로운 풍경 때문에 도로취면에 걸려 잠시 쏟아 집니다. 2시간 이상 운전 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쉬어가며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이번 고향집 방문엔 풍성한 선물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드려 "올 추석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세요."라고 말하고 싶다.

독자제언

한가위,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온 집안 친척들과 가족들이 한곳에 모인다. 이제 곧 추석명절이다. 그 동안의 인사를 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그 동안의 못 다한 이야기와 지나간 일, 추억과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 하면서 명절을 보낼 것이다.

지긋지긋한 교통체증을 이겨리며 고향으로 내려와 가족을 만나는 이유는 아마도 고향이 그리움과 객지의 삶에 지쳐있는 심신을 고향의 냄새와 맛 그리고 풍경으로 달래보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대인의 이러한 즐거움을 일상의 바쁨과 누군가의 이해를 바탕으로 무관심으로 지나치곤 한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지나쳐버린 가족의 소중한 점점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벌어진 사이는 명절에 만나버린 가족 간의 대화에서 공감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공감을 하지 못하는 대화는 회의와 냉소로 바뀌고 이내 목소리는 높아지고 싸움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명절간의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이유일 것이다. 물론 모든 가족 현대인

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다.

아마도 일부분이지 않겠는가? 가족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부모자식간, 형제간, 자매간, 남매간에 사소한 다툼은 항상 존재한다.

과거에도 가족 간에 이러한 다툼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다툼이 가정폭력으로 변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늘었다.

왜 일까?

필자가 내린 결론은 관심이다.

과거에는 전화도 부족하고 기회도 많지 않았지만 늘상 대화를 했고 어쩌면 가부장적인 가족체제에서 밥상에 마주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매일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고 대화 아닌 대화를 비롯하여 가족 간에 관심을 줄 수밖에 없었다.

가부장적인 가족체제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가족체제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관심은 상대를 이해시키고 싸움지연정 회의하지 않고 냉소적이지 않다.

불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족체제였던 사회가 이제는 변화하였다면, 스스로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우리 스스로 변화였고 스스로 원했던 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한다.

인태익 남원경찰서 경무계 경장

독자제언

추석 연휴, 자위방범구축으로 빈집털이 예방하자

추석 연휴 즈음하여 지금 고향 또는 해외 여행 등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창 들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향 방문 또는 즐거운 해외 여행 계획을 짜는 것도 좋지만, 떠나기에 앞서 '빈집관리' 계획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휴가철 또는 명절 절도 건수는 평상시 보다 증가한다고 한다. 이처럼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에서는 절도 발생 취약지역 등에 지속적인 방범순찰 등 맞춤형 범죄예방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정된 경찰력 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빈집털이 절도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문 등에 견고한 방범창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열리면 작동하는 경보장치(비상벨)를 설치 하고 TV와 라디오 예약 기능 활용하기, 집 전화기는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 집안에 모형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주민 스스로도 적극적인 자위방범구축 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적인 절도 피해를 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내가 그러한 범죄를 당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절도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어느 누군가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며 언젠가는 나 자신도 그러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자위방범구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절도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재산적 손실도 크지만, 그보다 정신적 피해가 훨씬 클 것이다.

또 다시 우리집에 도둑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랜 시간동안 심리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고 심한 경우는 그집을 떠나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다.

빈집털이 절도 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범죄예방을 위한 자위 방범 구축이라고 생각 된다. 더구나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유류 및 신문 등은 떠나기전 배달을 미리 중지하고, 기타 우편물 수취와 전단지 제거는 이웃에게 부탁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경비실에 꼭 연락해 감시를 요청하고 또한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실시한 빈집 사전 예약순찰제'를 적극활용하고, 보석 등 귀중품도 보관 의뢰해 도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번 명절은 빈집털이 절도 피해 없는 즐겁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길 바래 본다.

배봉규 원산시 서학파출소 팀장

사설

추석 대목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에 당부한다

추석 대목을 맞아 도내 대형 마트에 당부할 말이 있다. 지역 농산물과 관련해 판매 협조가 있어야겠다. 지금 도내 대형 마트들이 보이는 영업 행태는 도민들의 정서로 볼 때 마땅치 않다고 밖에 달리 평가할 수가 없다. 도내 대형마트들은 지역과 조화하며 상생하려는 정신태도를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번에 도내 각 지자체가 상생을 위해서 협조를 요구했을 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했다. 재래시장과 골목의 영세한 상인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었던 것이다. 그래서 도내 대형마트들은 그에 따라주지 않았고 있다. 서두에 이미 언급했거니와 추석 대목을 맞아 돈 벌이에만 너무 눈을 밝히지 말라는 당부이다.

도내 대형마트들은 도민들은 물론이고 각 지자체하고도 친화하려고 해야 한다. 지난해 지역에서 1조 3천886억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음에도 기부액은 겨우 7억7천 8백만 원에 불과했다니 그것은 생

각해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자유 경쟁 시대라지만 지켜야 할 도리는 분명히 지켜야 한다. 대형 마트점들이 자본주의 논리를 휘두르면 지역사회에 희망이 없다. 거둬 말하지만 공존과 상생의 대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다. 영세업자들이 아직도 대형마트의 행태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승자독식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지적이다.

다들 알다시피 상생협조 요구는 우리 고장의 전수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그에 대해 시민들은 잘하는 일이라며 공감대를 같이 했다. 그에 대하여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측은 처음에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었다. 그래서 여기 덧붙여 다시 말한다. 추석철 도내 대형 마트들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도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가운데 지역을 위해서 돈도 좀 풀어주었으면 한다. 도내 물품 판매에는 소극적이면서 돈을 씩씩이해간다는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전북 인구 고령화에 주목해야

전북 인구의 고령화에 주목해야겠다. 거주 인구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예측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지점이다. 도내 거주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중에 인구 고령화의 빠른 추세에 대해서 우려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작금이다. 저번에 인구 감소세가 둔화 됐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본보가 전국의 광역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전북 지역만 인구가 줄은 것을 지적했거니와 현재의 제반 상황도 예전 그대로 이지않다. 전북도가 말한 이런 저런 방책들이 약발이 먹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지역 인구의 현황을 말할 때마다 정적해야 한다. 인구 감소세가 둔화됐다는 보고만으로는 도민들의 마음을 붙잡아 둘 수 없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 전북 지역은 인구 하향 고착화 현상을 보인지 오래되었다. 갈수록 도내 인구가 고령화 되고 있는 게 그 증거이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역동적으로 일해야 하는데 말이다. 2020년이면 도내 고등학생이 30%나 감소할 거라는 조사 보고가 나왔

는데 전북도의 생각이 어떤 지 궁금하다.

전북이 늙어가고 있다는 진단은 결코 허튼 지적이 아니다. 고령화 인구는 늘고 있는데 저출산 현상은 계속 유지부동이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인구 중 65세 이상이 34만 명이나 되는데 도민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같은 추세라면 2035년 쯤에는 고령 가구가 47%에 이를 거라는 예측이다. 이같은 보고는 호남 지방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른 것이라 아니라며 의문할 수도 없다.

전북도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웰빙 고장으로 만들지 궁구해야 한다. 문제의 해법은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낙후된데다 일자리마저 시원치 않다. 젊은이들이 여전히 수도권으로 몸을 옮기고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살다가 전북 지역으로 이사와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혁신도시 관계자들이 여기 불러 살도록 하려면 주거 환경이며 교육환경이며 교통 환경이 수도권 못지 않게 좋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